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양계에 희망을 갖자

이 영 현



양계로 축산한국을 육성해야겠다는 염원을 지닌 사람은 비단 소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농고에서 농학도들을 위시해서 곳곳에서 나쁜 여건을 무릅쓰고 양계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크나큰 포부가 있기에 우리는 축산 한국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사료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그다지 수지타산에 좋은 가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묵묵히 양계장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양계업이 별 지장 없이 운영된다면 그런대로 문제는 없겠지만 때로는 역병

(疫病)이 계사를 엄습하여 그토록 애쓴 보람이 없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체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로 인하여 닭의 사망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기전에 한가닥 희망을 가축의 예방의학에 걸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란을 공급할 수 있다는데 양계업자로서의 희망을 갖고 여하한 곤란이라도 인내해 나가는데서 단절이 없는 계란공급이라는데 기쁨을 찾는 습성을 가져야겠다.

계란에 관한 일화로 크리스토퍼·컬럼버스의 계란세우기

가 있다. 어느날 계란을 세워보라는 제의에 대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였다. 그러나 컬럼버스는 달걀 한 쪽을 깨뜨려 알을 세웠는데 이에 대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깨뜨려 세우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컬럼버스를 힐난했다. 컬럼버스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작가 셔우드·앤더슨의 단편 “달걀”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즉 초를 후라이팬에 붓고 부글부글 끓이다가 달걀을 엮어 놓으면 달걀이 연화(軟化)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달걀을 병의 위쪽에 있는 좁은 아가리를 통하여 병속으로 넣어보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달걀에 관한 일화는 많이 있지만 산란을 증진시킨다거나 하는 부문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것에 치우칠 뿐 에피소드로는 태무(殆無)한 실정이다. 닭중에서 레그혼은 가장 산란율이 높은 난용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그혼이 것처럼 산란율이 높은데 비하여 다른 종류들은 산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육용으로 쓸 수 있는 잇점이 있으니까 그런 종류들은 전혀 도외시킬 수가 없다. 아무튼 난용종이든 육용종이든 잘 육성해 놓고 보면 그 노력은 헛되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는다. 그리고 양계업계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로써 사료문제가 있고 소음공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나는 새로운 사료를 한가지 소

개하고자한다. 바닷가에 가면 바윗돌에 붙어있는 해초가 있는데 이것은 몇가마니 정도 손쉽게 끊어 모을 수 있으니 사료난 해결에 첨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변 근처의 양계업은 앞으로 이런 사료에다가 굴껍질 등을 채취하여 복합사료를 만들어 주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들 사료를 주었더니 약한 닭이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사를 감돌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야말로 손쉬운 사료난 해결방식이자 산란률을 높이는 타개책이 될 것이고 실망을 주기가 보통인 우리의 양계업에 밝은 빛을 던져줄 것이다.

사료난을 해결하기 위해 닭을 놓아 기르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대규모의 양계가 아니고 소규모에 적용된다. 닭을 야외에서 활동시키며 마음대로 먹이를 먹게하기 때문에 사료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먹이를 골고루 쪼아먹게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닭이 비교적 빨리 성장해서 산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알 낳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계사 밖에서 낳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경험한 바로는 집에서 떨어진 밭 울타리 밑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알을 낳은 적이 있었다. 처음부터 계사안에서 알을 낳도록 용의 주도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양계

社 告

〈월간 양계는 독자들이 만드는 잡지입니다. 나의 제언 생활수기 성공담 실패담 정부나 협회 업계에 비리는 일 등 무엇이든지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